

“어려운 이웃 향한 나눔과 봉사 이어갈 것”

자유총연맹 목포지회, 상동에 마스크 기탁
사랑의 밥차·환경 개선·교통 캠페인 앞장
박백희 회장 “공익 활동 솔선수범” 강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활동
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복지 사각
지대 해소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웃사랑을 실천해 온 민간단체가 거듭 온정을 나
누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는 최근 목포시
상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KF마스크 4천800
장을 기탁했다. <사진>

전달된 마스크는 경로당 어르신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한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을 돕고 양을
산 축제 방문객들의 안전한 행사 참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의 나눔은 단순



한 1회성 물품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 곳곳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시지회는 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
르신들을 위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배식 봉사

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
·조손가정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사
랑의 집 고쳐주기’도 전개하고 있다.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등 위

기가정을 방문해 목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활
공간을 정비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
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공익활동으로 학교 주변과 공원 일대에
서 아동·청소년 보호 순찰과 교통안전 캠페인
을 수시로 진행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과 해안
가 쓰레기 수거·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도 구
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남도국제미식
산업박람회를 비롯한 굵직한 지역 행사마다 자
발적으로 질서 유지와 안내 봉사나 나서기도 했
다.

김광선 목포시 상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소중한 물품을 후원해준 한국자유총연맹 목포
시지회와 건영크린텍에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을 필요한 이웃과 행사에 소중히 활용하겠
다”고 말했다.

박백희 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장은 “작은 나
눔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시
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이임순 할머니, 전남대 로스쿨에 3년째 1천만원 기부

아들 모교에 감사 전하려 생일마다 기부
평생 농사·양계장·나물 장사 7남매 양육
지난해부터는 극락초교에도 장학금 전달

이임순(89) 할머니가 7남매 중 막내아들(이
금규 현 해병특검 특검보)의 모교인 전남대학
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년째 기부 약속
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임순 할머니는 올해
도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도와

준 대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뜻에서
시작한 기부다.

이 할머니는 치평동 평촌 마을에서 농사와 양
계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양육했고 37년 전 남
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한 뒤에도 홀로 농사일을
감당했다. 양동시장과 상무금융시장 등지에서 시
금지 등 나물을 팔며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왔다.

노환으로 재작년부터는 시장에 나가지 못하게
됐지만 기부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해부터는 7남매가 모두 졸업한 극락초등학교에
도 장학금 기부를 시작하며 나눔의 범위를 넓혔
다.

이 할머니는 평생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가장 큰 한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1



이임순 여사와 막내 아들 이금규 특검보.

93년 정축년 소미 해에 태어나 평생 소처럼 부
지런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배움의 기회를 누리

지 못했던 자신의 아쉬움을 자녀 교육으로 풀어
냈다. 특히 막내 아들이 졸업한 전남대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

이임순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농사일도 할
수 없고 돈 한 톨 벌기 어렵지만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
라도 갚고 싶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정성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일마다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할머니의 막내 아들 이금규 변호사는 전남
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검 등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
호사로 활동하며 주요 헌법적 헌안에서 국회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해병특검
특별검사보로서 관련 사건 진상 규명에 힘쓰
고 있다. <김재정 기자>



나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초청 ‘힐링투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15일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노인 실무부와 주관으로 최근 문
화·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어르신 60명을 초청
해 ‘나주 힐링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힐링투어를 통해 평소 바깥 나들이
가 쉽지 않은 노인복지관 이용자 및 요양원·양
로원 입소 어르신 등에게 지역 관광자원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나주배박물관 머그컵 만들기 체
험을 시작으로 나주영산강축제 관람, 영산강 황

포돛배 탑승, 영산포 철도공원 산책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나주에 살면서
이런 날은 처음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하루였
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민·관이 협
력해 복지 수요를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
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북부경찰, 용두중서 학교폭력 예방 ‘투게더 폴 데이’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이날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북구 용두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
로그램인 ‘투게더 폴 데이(Together Pol Day)’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투게더 폴 데이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하루
동안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
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등굣길 합동 캠페인과 간
담회를 진행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경
찰학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범죄 예방 가상현실(VR) 기기 체험, 범죄 예방
퀴즈, 지문 배치 제작, 경찰 제복 체험 등을 통해
학교폭력뿐 아니라 사이버도박과 마약, 금품갈
취, 절도 등 청소년 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양백승 광주 북부경찰서장은 “학교전담경찰
관을 중심으로 신중범죄를 포함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상습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과 피해 학생 보호에도 힘쓰겠다”며 “청소년들
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천웅 기자>

(주)삼해개발, 세계섬박람회 입장권 2천만원 약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최
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주)삼해개발과 2천만원
상당의 ‘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약정식에는 서영학 여주시장과 강현재 삼해
개발 사장, 김종기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
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18년 여수에 동지를 틀고 현재 거문도 일대
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삼해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
해 후원을 결정했다.

강현재 사장은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
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영학 여주시장은 “삼해개발의 동참이 박람



회에 대한 시민과 기업들의 관심을 크게 높이는
효용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섬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
리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
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6
1일간 돌산 진도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여수=김진선 기자>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신수정)는
지난 14일 청장실에서 운암1동 새마을 부녀회
로부터 지역 발전과 이웃 사랑 나눔을 위한 고향
사랑 기부금 220만원을 기탁 받았다.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22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지역사회의 어
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
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랑의 밀반찬 나눔, 경로당 복달임 행
사,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명절 차례상 차리기
등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역시 지역에 대한 애
정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



으로, 그동안 실천해온 봉사활동의 의미를 지역발
전을 위한 기부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운암1동 새마을부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
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천웅 기자>

김효진 제80대 무안경찰서장 부임



김효진(58·사진) 제80대 무
안경찰서장이 15일 공식 부
임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 45기
로 경위 임용된 김 서장은 29
년간 치안 현장과 수사 최전
선을 지켜온 베테랑으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
제범죄수사대장, 광주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전남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임기 동안 무안 지역의 안정적인 치
안을 이끌어온 최영수 전 서장은 수도권 치안의 핵
심인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안=김상호 기자>



여수무선3차 아파트 행복지원센터
어르신 맞춤 여가 프로그램 ‘호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무선3차 LH임대아
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는 15일 “단지 내 어르신
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운영 중인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총 1천497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는 65
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60%에 달해 치매·고독
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영배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어르신들의
흥미를 이끌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홀로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며 따뜻한 주
거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정성껏 살피겠
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서부경찰, 고위험범죄피해자 ‘안심키트’ 지원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고위험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돕
기 위해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SAFE-O
N 안심키트’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피해자의 불안과 재피해 우
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피해자의 위험도
와 생활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안전용품을 맞춤
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물품 지원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
니터링과 안전조치를 병행해 추가 피해를 예방
하고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이연상 기자>

“우리 결혼합니다”



▲서동교(주식회사 팡죽 대표이사)·
박경옥씨 장녀 서영주(주식회사 팡죽
실장) 장남 신단식·이미령씨 장남 신수호
군=10월17일(토) 낮 12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010-2923-2388(서동교)

부음

▲유태환씨 별세. 유정철(KIA 타이거즈 광고상
품팀 프로)씨 부친상=발인 16일(금) VIP 장례
타운 VIP302(전남광주 서구 풍서좌로 237) 062-
521-4444